

# 都市人の 特性과 그 發展的 模型의 誘導

金 眞 一  
漢陽工大教授

## 1. 추구되는 集約된 方向

近代國家의 목표가 福祉社會指向이라는 데는 누구에게도 異論이 없다. 近代化作業이나 民主주의적인 實踐道場으로서의 노력은 이미 公同된 國際的 感覺인 것이다. 한편 지금 이 나라에 전개되는 애국운동이나, 그에 따른 精神革命의 요청은 한世代 지각한 감이 들지만 地勢的인 與件으로 韓國으로서서는 宿命的인 운동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은 思潮를 요약하여 時流에 適応시키면 그것이 잘살기운동이요, 바로 福祉社會指向인 것이다. 이를 다시 풀이해서 우리는 새마을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운동의 定向을 잘 살아보자는 國民的 欲求具顯面에서 찾아야 한다면, 잘살기 위한 條件의 擴大作業은 누구에 의해서나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또 어디에서나 전개하는 汎域의 성격의 운동으로 成熟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운동은 全力持續의 原則을 뜻하는바 그것이 일시적 또는 마음 내킬때 잠시 해보다 그쳐버리는 운동이 아니다. 自有(OWN)의 技量과 智慧와 노력을 進化的 目標의 成就面으로 간단없이 투입하는 汎時的 성격의 운동으로 지속되어야 될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옛부터 있었던 地域社會운동의 성격을 떼어낸 것의 거의가 限人的 組織으로서 限地的 領域에서 限時的 성격에서 脫皮하지 못한 것이 그 좌절의 主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거를 되새겨 볼 때, 農村새마을운동을 도시로 그 焦點을 옮긴 것은 意義있는 일이다. 그런데, 농촌새마을운동이 官 위주였으나, 과연 도시에서도 농촌

과 같은 指導理念이나 요령으로 이 운동이 성취될 것인가. 이것을 보다 성취시키기 위해 우선 都市와 도시 사람들의 特性을 考察하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無關心 無氣力, 無責任의 都市 三無主義가 깔려있는 바탕을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 2. 都市人の特性

都市와 農村, 都市는 농촌과 대조적이다. 도시에서의 人間解放을 자연해방, 역사해방, 地域社會해방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시는 犯罪者의 根據地이면서 天才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이 兩者에서 하나의 共通點은 전통적인 行動 規範에서 전혀 忠實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농촌의 경우 社會的 行動의 규범은 慣習에 의해서 形成되는 것이다. 年少者는 年長者의 行동을 관찰하면서 전통적인 行동안식을 不知中에 익혀 왔다. 또 연소자는 전통적인 行동을 그 自身의 人格의 要素로 하였다. 이러한 農村을 흔히 未開의이라 보는 경향도 있으나, 事實은 그런 것과는 뜻이 다르다. 어느 의미에서는 농촌은 近代都市보다 복잡한 것이다. 우선, 前都市社會는 생산기초가 自然의 周期에 따라야 하므로 自然制約이 크다. 또 因習, 傳統등의 과거가 뒤따라 생활을 크게 制約한다. 이 歷史解放이야말로 자유를 갈구하는 현대인의 최대매력이다.

都市와 人間性. 도시생활은 人間性에 크게 영향을 준다. 도시사람은 친근한 사이 이외에도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한다. 그것은 그 자리뿐일 수가 많고, 上司는

상사로서, 신문팔이에게는 신문팔이 아이로만 상대를 한다. 또 도시 사람의 生活은 일견 奇異하고 矛盾된 성격의 匿名性에 의해 특색지어 진다. 도시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社會的 接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個住民은 그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의 人格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그 관계하는 特定環節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條件들이 도시사람의 人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大都市를 訪問하는 농촌사람은 도시사람이 每事에 자기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곧 눈치챈다. 그는 그의 行先地인 光化門을 찾는 자신의 서투름에 우선 짜증이 난다. 웅성거리는 都市(驛) 群衆이 제각기 行先을 쉽게 찾아 地下鉄, 음식점街, 또는 売票所나 버스정류장—아니면 그 출서 있는 사이를 빠져 재치있게 택시를 잡는 승객에서, 많은 慣例나 약간의 제스처어나, 손짓의 信號를 이해 못하는 데서 짜증과 갈등이 싹 트는 것이다. 이와같은 都市環境에 잘 적응하려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은 반드시 많은 知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外樣上 농촌사람은 도시사람보다 劣等한 知能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데서 우리는 가끔 도시사람을 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한다. 그러나 이것은 個人的 相違가 아니고 도시사람과 농촌사람의 人格形成에서 오는 生活양식의 相違에 관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개개인의 誤解나 異質의인 社會間的 緊張등의 다른 원인을 理解하므로써 이러한 오해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環節狀化(Segmentalization) 도시사람은 많은 環節—各環節은 그 成員이 다른 Situation의 型에 符合한다—에 分割하는 부분적 역할을 통해서 다른사람과 접촉을 한다. 하루의 行動에 있어서, 도시사람은 다수의 社會集團에 관계하게 된다. 이들 사회집단은 第二次集團으로 불리우는데 그것은 特定目的을 위해서만 기능을 하고 다른 목적은 거의 排除한다. 이 集團은 집단 全成員의 緊密로 全體的인 知己를 특색으로 하는 第一次集團과 구분된다. 도시에에서 이런 集團은 家族集團이나 극히 친근한 友人 사이에서만 볼 수 있다. 도시사람은 어디에서나 spacialization의 일면으로 社會關係를 만들어 간다. 例로, 이발소에서는 이발소로서만 接觸한다. 이발사는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고 머리를 잘 다듬어주기만을 바란다. 손님은 이발사의 家庭이나 그의 道樂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이러한 것은 다른 社會關係에서도 같다. 牧師가 그렇고, 버스운전사, 店員이 그렇다. 이처럼 都市에서의 社會關係는 一面的인 性格의 것이다. 그것이 어떤 特定時의 人格의 一環節에 대해서는 集中的인 것이라 할지라도 전혀 옳은 일은 아니다. 이러한 接觸은 모든 개인의 활동이나 野心을 다른 사람과 같이 하려는 人格的 關係라든가, 또는

완전한 同一化나 정신적 支柱를 주려는 接觸에 대하는 人間의 要求를 채울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役割의 轉換. 도시의 生活樣式에 적응하려면 당사자는 대단한 緊張을 느낀다. 그는 다양한 役割에 일관된 행동을 주어 自己同一化의 體驗을 주는 支柱體에 통합하는 일에 외로이 도전을 해야 한다. 또, 다양한 역할에, 그 때와 장소에 따라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教會에서는 祈禱를 하고, 일에는 頭腦의 集中을, 蹴球 game에는 聲援을, 파티에서는 愉快하게 지내도록 제각기의 경우에 專念해야 한다. 이쯤되면 그의 人格은 分裂될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대단한 柔軟性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도시생활 속에서 自己喪失할 수도 있는 것이다.

Stereotype. 도시에서의 一時的이며 다양한 接觸은 빠른 態度決定이 요구된다. 背景을 모르는 많은 對面者와는 곧, 그는 나에게 敵對의인가, 友好的인가, 아니면 스스로 善行을 할 사람인가 등을 알아야 한다. 신속한 態度決定의 필요성은 都市의 社會關係에 또다른 요소를 導入하는 결과가 된다. 즉, Stereotype의 사용이며 그것은 人格의 Snap Judgment인 것이다. 他人에 대한 Stereotype의인 思考方式은 都市環境에서는 비교적 貧困한 지식에 의지해야 하는 데에 원인이 있다. 이러한 思考는 근본의 感情보다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觀察할 수 있는 행동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外樣性은 性格이나 情緒性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는 頑固한 사람과 溫順한 사람, 또는 親切한 사람과 수다스런 사람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하는 기술을 익혀왔다. 또 우리는 택시 운전사와, 守衛에 대하는 방법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Stereotype는 개략으로 社會적 分類에 따라 組織化되는 경향이 있다. 경험이 풍부한 도시사람들이 취하는 禮儀법절은 그 服裝과 風采에 표현되는 직업과 取入의 다른점에서 정하여진다. 또, 여러가지 상황이나 事態를 이해하는 데는 詭辯性이 필요할 때가 있다. 우리는 職場의 長인 支配人과 우리가 消費者이면서 顧客인 商店의 지배인을 구별해서 대해야 한다. 우리가 일단 사람들의 個人的反應의 型을 손쉽게 判定할 수 있게 되면 未知의 사람과 대하는 데는 신속한 反應이 중요시 되는 都市生活에는 우선 成功의 실마리를 잡은 셈이다.

Cosmopolitanism. 情緒的으로 도시사람은 두꺼운 껍질(Shelter) 속에 살고 있다. 心理的으로 정상적이 되려면 도시사람은 하루 중에 그가 만나는 많은 사람과의 緊密한 同一化를 피해야 한다. 더우기 人間相互作用에서의 疲勞와 倦怠는, 단순히 그 數量이 아니고 그것은 전혀 異質의인 문제이다. 도시사람을 둘러싼 많은 사람은 相違한 型의 인간이므로, 直典的으로 쓰는 Stereotype의 기술도 깊은 同情과 理解하는 態度와는 다

른 것이다. 도시사람은 어느정도의 무관심함이 없이는 多様な Personality나 Situation—그 속을 빠져나와 人生行路의 Key를 잡아야 한다—에 의해 당혹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 때문에 無關心함이 도시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도시에서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도시에서는 많은 特異한 사람들은 相互理解의 길을 모색한다. 비슷한 성격이 모여 친구로서 同情을 나누는 機會를 가진다. 이들은 서로 접촉하여 그들의 特異性을 점점 더 深化시킨다. 飲酒, 登山, 낚시 심지어 盜癖狂도 있다. 그들은 점차 집단 의식과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外部世界에 대한다. 도시사람은 이러한 特異한 개인이나 집단을 異端視해서는 안된다. 도시에서의 개인이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려면은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奇異하고 이상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 한다. 자유는 도시를 지배하고 있다. 많은 Minority는 그들 자신의 所信을 표명하고, 또 그들 자신의 生活樣式을 추구하며 團結하는 權利를 갖고 있다. 도시에서는 相違性은 당연한 것으로 表明하고 있으나 서로의 相似性의 Stamp까지 받으려는 자세는 아니다. 때문에 도시사람은 生活信條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擲世術을 몸에 익혀야 한다.

都市家族. 개개 成人은 專門化되고 細分化된 都市諸活動에 참가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면서 家庭으로부터 방황하기 시작한다. 도시의 産業은 고립된 개인에게 유리한 就業의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의 機能集團의 생활로의 참가도 個人本位로 되어 있다. 그리고 都市의 福祉, 救濟施設이 대상으로 하는 것도 家庭全体가 아니라 개인본위로 되어 있다. 그 결과 大血緣家族은 개개성인에 대한 支配力을 점차 상실하여 核家族化되었다. 그런데 개인의 都市生活背景으로 核家族도, 忠誠心의 葛藤도 개인의 利害衝突에 의해 危機에 직면한다. 이러한 利己主義로의 길은 離婚이나 非行의 높은 發生率로 나타나고 있다.

匿名性. 都市生活은 대부분 匿名상태로 지낸다. 그들 人格의 극히 일부분, 一環節이 많은 社会的 広場에서 機能을 할 뿐이다. 新聞팔이, 버스칸의 商人, 牛乳配達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도시생활의 匿名性은 어떤 類의 개인이나 集團을 유인한다. 犯罪者는 도시군중속에서 그들의 일터를 구하는데 그것은 도시군중이 金錢的利得의 기회와 匿名性의 安全性을 동시에 提供하여 주기 때문이다. 그들은 末知人을 노리지만 그들의 友人이나 동료에 대해서는 의외로 엄격한 規律의 禮儀와 옴은 태도로 대하고 있다. 소위, 流浪集團— 芸術家, 作家, 俳優, 學者—도 도시에 모여 드는데 그것은 都

市의 社会風土가 농촌의 그것보다 비위에 맞기 때문이다. 그들은 새로운 表現形式을 구하고 先人에게 구애 받지 않는 赤裸한 眞理를 구하기 위해 傳統과 束縛에서 새환경을 찾는 것이다. 即, 匿名的, 環節的 관계는 私利的 관계와 相通한다. 여기서는 개인적 忠誠心은 버려지고, 成功을 따르는 경쟁은 극도로 個人主義化되어 있다. 이 경쟁의 원칙을 버리고서까지 도시사람이 그보다 약한 친구에게 同情을 준다는 일은 바라기 어렵다.

### 3. 模型의 展開

위에서 보는 도시사람의 否定的인 측면을 改善하기 위하여 다음의 發展的 模型과 같이 유도하여 보았다.

	미발전적측면	과도적측면	발전적측면
自由性	방 중 무 규 율 모 방	자기 발견 문화선택 역사인식	인 격 형 성 질 서 존 중 전통과의조화
匿名性	도 피 처 배금사상 卑 俗 化	취업자세 인간적회복 자기정화	사회성원화 현명한소비 공 덕 심
利己性	자기본위 雷同性 경쟁심	소 속 감 생활교양 역 할	충 성 심 자 율 성 협 동
瞬間性	가 식 성 일인단역 찰나주의	개 방 성 상 호 이 해 상 항 통 찰	성 실 성 공 동 참 여 지 속 성

도시사람의 意識構造가 이 模型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각기의 生活을 통하여 個人的인, 社会的인, 그리고 국가적인 次元의 課題를 꾸준히 實施해야 할 것이다. 우선 개인적인 과제로서 도시사람은 隣保的인 協同性을 가지고 公益性을 앞세워 실천하는 個性伸張을 하며 未成熟 世代의 人格的인 社会化에 盡力해야 할 것이다. 社会的 과제로서는 불건전한 퇴폐풍조를 改造하고 사회규범 및 질서에의 類型的 同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職業的 技能의 力量 擴大와 사회적 창조력과 능동적 태도의 개발에 각자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적 次元의 課題에서는 市民은 개인과 국가와를 同一視하여 역사적 주체의식과 정통성을 體質化해야 한다. 또, 자기의 權利와 의무의 責任있는 行使를 하여 국민 총화에 적극적이며 實質的 참여가 요청된다.

끝